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



신영만 부사장님

2011년은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년 휴가 때, 10년 후인 2020년 KC Cottrell은 어떤 모습의 회사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다가 '적어도 1조 매출은 해야지'라는 비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전 달성의 성패는 향후 몇 년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1조 Club에 가입합시다

KC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KC-Cottrell 제철사업부장 신영만 부사장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충분한 휴식과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

해가 바뀐 지 벌써 1개월이 지나 갔습니다. 저는 새해가 되면 항상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자 하는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몇 일 하다가 그만둔 계획도 있고 아직 시작도 못한 것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과거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계획들은 '1개월이 지났으니 내년에 다시 시작하자' 라고 포기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음력으로 새해부터 새로 시작한다면 11개월은 실천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신년에 마음먹었던 계획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괜찮은 생각인가요?

과거 10년을 뒤돌아보면 우리회사는 IMF 직후 국가적 경제난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창사 이래 가장 어려운 고비를 맞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3개년 중, 단기 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통하여 3-3차 계획이 마무리된 2010년에는 수주, 매출 및 영업이익에서 10년 전에 비해 10배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3000억 매출에 달하는 회사로 성장 하였고, 향후 3년 후인 4-3차 끝나는 2013년 말에는 5000억 매출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CEO의 탁월한 리더십과 경영진 및 모든 직원들이 혼연 일체가 되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지난 10년간의 성과에 만족하고 안주한다면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빌립보서 3- 13)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과거 자신이 이루어 놓은 성과에 만족하거나 안주 하지 말고 새로운 목표를 찾아 노력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지난 10년간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며 과거 실적을 고집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실적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회사는 퇴보하고 말 것 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앞서 언급한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로마서 12- 2). 즉 '과거에 해 오던 습관대로 일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 새롭게 일 함으로서 세상의 요구에 맞게 변화 해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 개발의 속도가 빠르고 변화가 많아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가 누구인지, 어떻게 하여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직원이 전공에 상관없이 어떤 일이든지 다 해낼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라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시대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스스로 변화하고 노력하여 수년 후에는 KC-Cottrell도 1조 클럽에 들어가도록 모든 직원들이 저의 비전에 동참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KC코트렐 제철사업부 신영만 부사장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KC 코트렐] 전기집진기 Test Tower 완공

KC코트렐은 2011년 1월20일 KCMS(안성공장)에 전기집진기 Test Tower를 준공하였습니다. 이 Test Tower는 오래 전부터 그 필요성이 언급되었으며 작년 CC20프로젝트(원가절감 프로젝트)의 신기술 아이디어 제안 공모에서 발의되어 실행에 옮긴 의미 깊은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집진기 전문 회사로서 World Best World First를 향한 신기술의 접목 및 기존Data의 재정립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시 필요한 Test가 있으면 아래의 사양을 참조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Test Tower 목적 :

- 1)집진기에 전압을 인가하였을때 V-I특성연구
- 2)집진극 간격 300mm ~ 600mm에 따른 Corona특성
- 3)집진극 및 방전극 Type별 V-I 및 Corona특성
- 4)추타장치 Type별(MIGI Rapper & Side Hammer)추타 강도 Data취득
- 5)전압 55kv ~ 100kv 인가시의 V-I 및 Corona특성

사양 :

- * 22.8 Meter(H) x 7 Meter(W) x 7 Meter(D)
- * "C" Type (Side Hammer) Rapping 장치
- * "K" Type (MIGI) Rapping 장치
- * 집진극 간격 300 mm ~ 600 mm간격 조정가능
- * 55~72kv Conventional Transformer
- * 83kv Power+ Transformer
- *** NWL에서 100kv Power+ Transformer개발되면 추가로 설치 예정

KC코트렐 임창호 상무(changho@kc-cottrell.com)



◁▽ESP Test Tower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KC 코트렐] POSCO, 우수협력 중소기업 초청
신년 간담회에서 우수공급사 선정

포스코는 1월 7일 포항 청송대에서 2010년도 설비·자재 우수 협력 중소기업 70개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우수 협력 중소기업 초청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총 69개 공급사가 초청되었으며 금번에도 설비구매그룹의 추천으로 당사가 설비 우수공급사(10개사)로 선정되어 "설비-동반성장"부문에서 감사패를 수여하였습니다. (연속3년 동안 수여함)

포스코는 지난 한 해 동안 동반성장의 기틀을 다지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은 우수 협력 중소기업에 감사를 표하고 구매방침 공유를 통해 신뢰를 바탕으로 또 다른 동반성장의 미래를 열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박한용 부사장은 "지난해 포스코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데 감사하며 신묘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포스코와 협력 기업은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로서 서플라이 체인 전체의 경쟁력이 확보되어야만 함께 윈윈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C그린홀딩스 김현주(hyunjoo@kcgreenholdings.com)



△감사패



△이태영 사장님 외

포스코신문

동반성장

2011년 1월 10일 목요일 11



아름다운 화음

동반성장을 위해 서로를 격려하는 목소리는 가장 피스하고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포스코 공급사와의 동행은 의미있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해나가는 동반자입니다. 포스코와 공급사의 동반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포스코가 추구하는 기업가치에 부응하고 필요해주시는 공급사에 감사드립니다. 포스코와 공급사의 동반성장을 위해 포스코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수공급사



posco
포스코
www.posco.co.kr

상생협력의 신명언어... 지혜와 신뢰의 '상생' 나라... ● 글로벌 상생경영을 가다... ● 동반성장의 시작... ●

△포스코 동반성장 포스터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KC환경개발] 4-2공구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조성공사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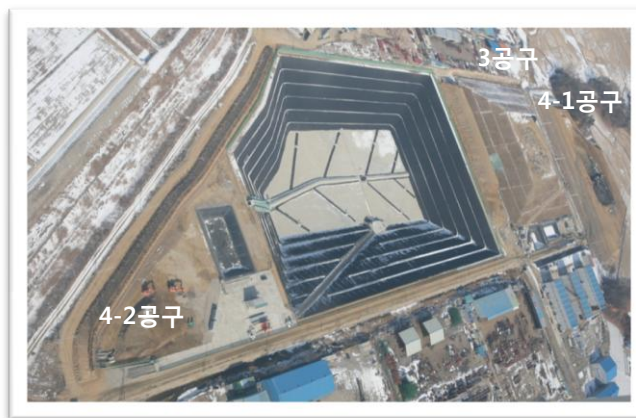
2010년 3월 2일 사업면적 : 74,194m², 매립용적 : 1,349,675m³ 규모에 총 공사비 약176억원을 투자 하여 경기도 화성시 소재 KCLS의 사업부지 내에 착공 하였던 4-2공구 조성공사가 2011년1월17일 준공되어 2011년2월1일부터 사용(영업)개시 예정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회사 최초로 직영처리system을 바탕으로 각 공정별 분리 발주를 통하여 비용절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착공 당시 기치로 내세운 안전, 완벽, 공기단축, 비용절감이라는 4대 slogan 중 안전, 완벽, 비용절감의 3대 목표는 달성되었으며, 공기단축의 목표도 곧 달성될 예정입니다.

KCLS의 4-2공구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조성공사가 무사히 준공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주신 모든 KC가족 여러분의 성원과 특히 본 공사에 참여한 KC정림환경(주)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KC환경개발 정문택 상무(mtjeong@kcls.co.kr)



4-2공구 전경

[안성유리공업] 첨단유리소재 공급계약 체결

안성유리공업㈜는 새로운 수익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1년 6개월간의 노력 끝에 국내 굴지의 회사에 '첨단유리소재'를 생산/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의 예상되는 매출액은 약 370억원이며 신제품 생산을 위한 신규 설비 투자로 약 9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신제품 생산을 통한 사업다각화를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기간은 내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입니다.

안성유리공업㈜ 경영지원팀 이봉형팀장
(leebh@asglass.co.kr)



관련사진:안성유리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심포지움

[KC코트렐] 건식 CCS 10 MW 협약서

지식경제부에서 발의하고, 그 산하기관인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관리하는 건식 CO₂ 포집 기술 개발 연구과제가 협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개발기간은 47개월(2010.11.01~2014.09.30)이며, KC코트렐은 (주)한국남부발전이 주관하는 3세부의 참여기관으로 본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합니다.

3세부 과제에서의 역무는,

남부발전 : 장기운전, 설비 유지보수, 운전 Data 취득

KC코트렐 : 상세설계, 구매/조달, 설치, 시운전, 장기운전 지원
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CO₂배출량의 94.5%가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되며, 따라서 에너지 부문의 CO₂를 줄이는 것이 CO₂감축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및 IGCC, 순 산소 연소 공정과 연소 후 포집기술을 포함한 CCS 기술의 적용으로 인한 비용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 되고 있으며, 회수 비용을 낮추려는 노력이 선진국을 포함한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습식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특유의 건식 재생 이산화탄소 흡수 공정 정립하고 대규모 발전소 적용 가능한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을 우리나라 순수 기술로 개발하였을 때, 국가 인지도 및 수출 경쟁력이 향상될 뿐 아니라, 세계 최초라는 차별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건식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은 건식 흡수제를 이용하여 발전소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공정기술로 하동 화력 발전소 500MW 초임계미분탄화력발전 8호기 옆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설비 규모는 발전소 배기가스의 2%인 10MW 규모이며 하루 200톤 규모의 이산화 탄소를 포집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건식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은 0.5MW 석탄화력 보일러 규모의 파일럿 설비를 하동화력 발전소에서 2010년 준공하여 실증 Test 완료 하였습니다.



관련사진 : 10MW(2000 Nm³/hr) 급 설비 준공식



0.5MW 급 설비 전경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제철소식] 포스코, 포항신제강 공사 재개

18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활주로 연장으로 조정 국방부
등과 합의서 작성 시 즉각 재개 가능 파이넥스, 4선재공장
등 후속투자 이어질 듯

93%의 공정률을 기록한 채 공사가 중단됐던 포스코 포항신제강 공장의 건설공사가 우역국철 끝에 결국 재개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영희 전 노동부 장관)는 18일 오후 3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본회의를 열고 비행안전 기준을 초과해 건설된 포스코 신제강 공장의 일부를 철거하는 대신 활주로 길이를 조정하고 항공안전장비를 갖추는 내용으로 조정을 결정했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비행안전 고도제한(기준 66.4m)을 해소하기 위해 포항공항 활주로를 반대편으로 378m 확장하고 활주로 일부 표면 높이를 5~7m 높이는 한편, 포스코도 고도제한 기준 해소를 위해 신제강공장의 상단을 애초 계획보다 1.9m 줄이는 것이 조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포스코 신제강공장은 연면적 8만4,794㎡, 높이 85.8m 규모로 연간 180만톤의 생산능력으로 포항제철소 조강생산 확장계획의 핵심으로 꼽히는 설비다. 지난 2008년 6월 허가를 받아 착공한 뒤 1조3,000억원(총 공사비용 1조4,000억원)을 들여 공정을 93% 완료했지만, 2009년 8월 포항공항의 고도제한 문제로 인해 공사가 중단돼 막대한 손실을 입은 상태다.

위원회는 신제강공장이 포항공항 활주로에서 2.1km 떨어진 비행안전 5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66.4m의 고도제한을 준수해야 하지만, 포항시가 국방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을 허가해 20m 가량 초과해 건설됐다고 판단하면서, 신제강공장의 상단부가 공장을 가동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비행안전 확보할 수 있게끔 절충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했다.

초과 건설된 공장 상단의 1.9m를 철거하는 한편 기존 활주로를 공장 반대편으로 378m 이동시켜 비행안전구역을 5구역에서 6구역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시설이 열악한 포항공항에 정밀계기착륙장치 등 각종 항공안전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했다.

앞으로 포스코와 포항시, 국방부 등 이해 당사자 간 MOU를 체결한 후에는 공사를 즉각 재개할 수 있다. 포스코에서는 대부분의 공사가 완료해있기 때문에 한 달 안에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파이넥스 3호기와 4선재공장 등 후속 설비투자도 연이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활주로 이동과 항공안전장비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1,000억원 가량의 비용은 포스코 측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위원회 결정사항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합의서만 작성되면 공사가 재개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공사 재개를 결정한 조정안을 환영한다”면서 “공사가 늦어진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해 준공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포스코 공장 문제를 초래한 포항시와 포스코에 엄격한 책임을 묻어 국가적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 포항시는 앞으로 각종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받고, 포스코는 사태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된다. 다만 활주로 연장구간의 절반 이상이 민간인 소유여서 인근 주민 설득 과정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철강신문 (1/19, 제1611호)

현대제철, 4월 당진3고로 착공

3조3천億 투자, 정몽구 회장 전경련 간담회에서 밝혀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3조3천億 투자, 정몽구 회장 전경련 간담회서 밝혀

애초 5월경으로 예상됐던 현대제철(부회장 박승하) 당진제철소 3고로가 한 달가량 빠른 4월에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수출·투자·고용 확대를 위한 대기업 간담회'에서 3고로 투자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정 회장은 "올해 4월 착공하는 당진 일관제철소 3호기에 3조3,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면서 "이로 인한 고용유발 효과는 약 10만여 명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의 이날 발언은 당진3고로와 관련해 첫 번째로 밝힌 구체적인 투자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 회장은 올해 시무식에서 "올해 3고로를 추가로 건설해 연산 1,200만톤 고로 생산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회사 측은 구체적인 착공시기, 투자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3고로를 4월에 착공하게 되면 2고로 건설공기(29개월)를 고려했을 때 2013년 8월 이전 화입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철강 신문 (1/26, 제1613호)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정유소식] 금호석유화학, '여수 합성고무 2공장' 준공

HBR 연간 12만톤 추가 생산, 세계 최대 규모 합성고무 공급
연간 매출 4000억원, 단일 제품 최고 성장 동력 확보

금호석유화학(대표 박찬구)은 9일 세계 최고 생산성을 갖춘 여수고무 제2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중국을 비롯해 세계 합성고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세 번째 합성고무 공장을 준공했다. 합성고무 공장은 울산에 이어 여수에 1, 2공장이 마련된 것이다.

여수고무 제2공장은 타이어, 신발 등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제품 중 하나인 HBR(High cis Polybutadiene Rubber)을 연간 12만톤 생산할 수 있다. 공장은 2008년부터 3년간 총 1700억원이 투입돼 여수산업단지 내에 들어섰다. 여수고무 제2공장은 금호석유화학이 울산고무공장과 여수고무 제1공장을 완공한 이래 31년 만에 건설한 합성고무 공장이다.

이 공장은 세계 최고의 인당 생산성을 보유한 것이 특징이다. 최고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 31년간 여수고무 제1공장에서 진행된 모든 공정 실험과 기술 혁신 노하우를 집약해 아시아 최초로 반응기 크기 확대 도전에도 성공했다.

반응기 크기 확대로 금호석유화학 여수고무 제2공장은 2개 라인에서 연간 12만톤의 HBR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3개 라인에서 12만톤을 생산하는 제1공장에 비교하면 50%, 1980년도입 당시와 비교하면 생산성이 무려 140% 증가한 셈이다.

금호석유화학은 여수고무 제2공장 가동을 통해 HBR 단일 제품만으로 연간 4000억원의 추가 매출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여수고무 제2공장 건설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세대 합성고무 사업도 가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수고무 제2공장은 총 12만4000㎡ 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HBR 제품 증설에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지는 2012년 하반기부터 유럽에서 시행되는 타이어라벨링 제도에 맞춰 차세대 합성고무 제품 생산을 위한 전략적인 라인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2010년 합성고무 제품 중 SBR(Styrene Butadiene Rubber)과 BR(Butadiene Rubber) 기준으로 세계 1위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여수고무 제2공장은 세계 최고 생산성을 바탕으로 금호석유화학이 '글로벌 리딩 화학그룹'으로 도약하는 핵심 성장동력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동시에 합성고무 글로벌 리더로서 합성고무 공급량을 확대해 수급 안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경제투데이 (2011-02-09)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시멘트소식] 유연탄 가격상승 '시멘트 업계 한숨'

시멘트 회사들이 시멘트의 주원료인 유연탄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 악화로 시멘트 가격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지난해 이례적으로 시멘트 가격이 오르지 않았지만 레미콘 회사들은 건설경기 침체로 레미콘 가격 상승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연관 업종의 기싸움이 가열될 전망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연탄 평균 가격은 t당 110달러였다. 그러나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t당 140달러를 찍은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t당 144달러를 기록했다. 겨울철이란 계절적 특수성도 있지만 지난해 1월 t당 115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해 최근 유연탄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유연탄 가격 급등을 세계 최대 원료탄 주산지인 호주 퀸즐랜드 폭우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해마다 유연탄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 전례에 비춰 유연탄 가격 상승이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유연탄 가격은 상승하는데 시멘트 가격은 오히려 낮아졌다. 지난 2009년 t당 시멘트 가격은 6만7000원선이었는데 지금은 5만원대 초중반으로 떨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멘트 가격은 원가 수준"이라며 "지난 2009년 시멘트 회사들은 그나마 실적이 개선됐는데 지난해는 전년 대비 실적에 크게 못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레미콘 업계는 시멘트 가격 인상에 회의적이다. 우선 지난 2009년에 시멘트 가격을 6만7000원선으로 올렸는데 2개월 만에 가격이 다시 낮아졌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시멘트 회사들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가격을 올려줬는데 시멘트 업체들이 다시 가격을 내렸다"며 "다시 올려달라고 할 명분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레미콘 업계는 건설사들이 건설경기 침체로 레미콘 가격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또 다른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레미콘 가격을 인상해주지 않으면 레미콘 회사들이 시멘트 가격 인상분을 그대로 안고 가야 하는 구조"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쯤 일부 시멘트 회사들이 가격 인상을 검토했다가 접었지만 올해 유연탄 가격인상추세가 이어지면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말했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시멘트소식] 시멘트소성로, 환경규제 강화

부원료 및 연료로 지정폐기물 사용금지기업형 재활용자에
폐기물처리신고제

대기오염과 건강에 악영향 미치는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국가 기준이 마련돼 7월부터 시멘트 소성로에서 지정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자발적’에서 ‘법제화’로

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에서 지정폐기물 사용 금지, 폐지·고철 등의 기업형 재활용자에 대한 폐기물처리 신고제 도입, 방치폐기물의 사전예방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예고 안에 따르면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자발적 협약에 따라 관리해오던 지정폐기물 사용 금지, 중금속 규제기준 등이 법제화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 만원이하 벌금이 부여된다.

폐기물을 연료나 부원료로 사용할 경우 폐기물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 방침이 강화된다. 또한 고철·폐지·폐포장재·폐의류 재활용업이 제도권 내로 흡수돼 관리될 방침이다.

휴·폐업 신고시 폐기물 사전처리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재활용신고자로 간주해 관리되지 않았던 고철·폐지·폐포장재·폐의류 재활용업 중 사업장 규모가 500㎡ 이상인 기업형은 재활용과정에서 폐기물 처리신고제도가 도입되며 500㎡ 미만인 사업장은 현행과 같이 폐기물처리신고자로 간주하되 재활용 실적보고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50㎡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별도의 의무부여없이 재활용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한 폐기물의 방치를 예방하게 된다.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가 휴업이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을 적정처리한 후 허가 또는 신고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 자원 순환국 관계자는 “이번 폐기물관리법 항위 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24일부터 시행된다”면서 “입법예고 기간은 1월18일에서 2월8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고 밝혔다.

*출처 - 환경일보 이진욱 기자 (2011-01- 26)

KC그린홀딩스 신수경(sookyoung@kcgreenholdings.com)

환율시장

2 월 환율 전망, 달러/원 1110~1140원 건조한 흐름 전망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2월 달러/원 환율은 외국인의 원화 자산에 대한 상대적 선호가 유지되고, 원화 저평가 인식에 따른 원화 절상 배팅으로 1100 원을 테스트하는 하락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선진국 경기 성장 기대와 재정문제가 상충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신흥국의 인플레이 부담, 특히 중국의 긴축에 대한 경계로 환율 하락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경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긴축 우려가 상충되면서 금융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미국은 경기호조와 재정문제가 상충되고, 유로는 유로존 차원에서 위기극복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유로존 대량 국채만기 등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면서 주요 통화들은 금리 차 플레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국의 인플레이 압력에도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힘입어 신흥국으로 자금 유입 기조는 이어지겠지만 당분간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인플레이 위험국에 속하는 신흥국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인플레이 위험이 낮은 신흥국과 선진국으로의 조심스런 자산이동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의 강도 높은 긴축과 함께 1월 중 위안화 절상 속도가 빨라지면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갔다. 춘절(2/2~2/8) 전후로 중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위안화에 대한 절상압력도 상반기 중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2월 중에도 위안화 절상 기조가 이어지겠지만, 중국 긴축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정상회담 등 정치적 이벤트의 종료 등으로 절상 속도는 다소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인플레이 안전국으로 분류가 되면서 인플레이 위험국들과 달리 1월 중 통화와 주가가 모두 강세를 나타냈다. 최근 인플레이 압력은 에너지보다 식품가격 상승에서 유발되고 있고, 글로벌 수요가 여전히 건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품가격 상승과 더불어 국제유가도 100 달러를 상회할 경우 한국도 인플레이 안전지대로 분류되기 어렵다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도 인플레이 압력이 최우선 정책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외환당국의 원화 절상 방어 의지는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신흥국 수요 감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가파른 환율 하락이 수출기업에게 이중고가 될 수 있어 정부는 환율하락의 용인 폭을 넓히되, 스무딩 오퍼레이션과 외은지점 선물환 한도 추가 인하 등을 통해 환율 하락 속도 조절 노력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2월 글로벌 외환시장: 1월의 유로화 랠리가 주춤하고,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긴축 우려, 글로벌 증시 랠리의 1월 효과 희석 등으로 미달러는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달러는 2월 국채만기 도래 부담, 재정안정기금(EFSF)의 증액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 등으로 1.38 달러 선에서 저항이 예상된다. 달러/엔은 달러 반등과 신흥국 긴축에 대한 우려가 상충하는 가운데 일본 재정우려 부각되며 83 엔 초반의 저항선 돌파 시도가 예상된다.

최근 환율흐름은 작년 1월초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즉, 미국 경기 개선 기대에 의한 글로벌 달러의 반등 흐름이 원화에는 오히려 강세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신흥국 인플레이 우려 고조에도 원화는 인플레이 안전지대로 분류되면서 상대적 강세 흐름이 뚜렷하다. 또 한가지 특징은 외국인의 원화 자산 매수세가 주춤해졌음에도 원화 강세 압력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미달러를 중심으로 국별 통화 가치가 차별화되는 상황 속에서 원화는 인플레이 안전지대 등 펀더멘탈 상의 우위 외에도 원화 저평가 인식이 중요한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판단이다. 올해는 원화자산의 적극적 매수가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외국인의 적극적인 원화 매수(달러 매도)를 통한 절상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

삼성선물 2011.01.27 2011년 2월 환율전망

by 정미영 Currency Analyst

KC 그린홀딩스 유민정 (minjeong@kc-cottrell.com)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원자재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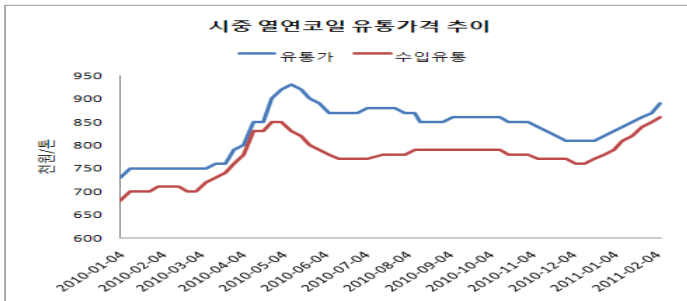
[열연]열연SSC, "가격급등에도 불안불안"

- 지난해 처럼 상고 하저 패턴 유지 우려...생산자 공급가격 인상으로 실질 수익 기대 이하

- 포스코 1분기 할인폭 목록부담

스틸데일리 기사요약 2011-02-08

시중 열연코일 가격 급등에도 SSC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올해 열연SSC의 수익성이 지난해와 같은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우려감도 증폭되고 있다. 즉 지난해의 경우 상고하저의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상당수 SSC들이 상반기 벌여 놓 것으로 연간 수익을 겨우 유지할 정도로 하반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올해 연초부터 강한 가격 랠리가 이어지면서 지난해와 같은 패턴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 즉, 지난해와 같은 패턴을 보일 경우 가격 급등기에 최대한 수익을 내야 한다는 압박이 SSC를 압박하고 있는 것. 그러나 최근 가격 급등에서 SSC의 이익은 기대를 밑돌고 있다. 현대제철 SSC의 경우 현대제철의 할인 축소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있지만 낮은 재고로 실질 수익은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 또 포스코 SSC는 포스코의 1분기 할인 방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불안감의 원인.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SSC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며 "올해도 지난해 처럼 상반기 호조 하반기 수익성 악화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그만큼 우려감도 크다"고 전했다.



냉연업계 2월부터 할인을 축소 "본격화"

- 포스코 유통향 3~5만원 할인 2월부터 축소 방침

- 냉연업계도 할인을 축소 의지 뚜렷 "적자 탈피하자"

스틸데일리 기사요약 2011-01-24

냉연업계의 할인을 축소가 2월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포스코는 4분기 유통향으로 판매되는 산세강판(PO), 냉연강판(CR) 등의 냉연재에 대해서는 톤당 3만원, 냉연강판(CR), 용융아연도금강판(GI), 전기아연도금강판(EGI), 열연용융아연도금강판(HGI) 등의 도금재에 대해서는 톤당 5만원의 시장할인을 적용해왔다. 현재 포스코의 1분기는 20일 경부터 시작되는데 현재 1분기 주문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업계에 따르면 아직 최종적으로 포스코의 시장할인폭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소폭 축소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대하이스코는 포스코와 비슷하게 냉연재 3만원, 도금재 5만원 수준의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동부제철과 유니온스틸은 6만원 수준의 시장할인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냉연사들도 포스코의 할인폭 축소 여부를 보면서 할인축소를 확정 짓고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포스코는 현재 철광석, 석탄 등의 원료탄 상승으로 전방위 실적압박을 받고 있고, 현대하이스코를 제외한 냉연사들 대부분은 12월에 이어 1월에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냉연사들은 수출가격이 대폭 상승하고 있으므로 수출물제는 해결되어가는 분위기로 내수에서 정상적으로 리스트가격만 받을 수 있다면 적정수준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냉연업계 관계자는 "적자모드에서 탈피하기 위해 내수 할인을 축소는 불가피하다"며 "할인율을 한번에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2월부터 단계적으로 할인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형강] 한국특수형강,현대제철,동국제강 형강류 제품가격 인상

스틸데일리 기사요약 2011-02-07

현대제철과 한국특수형강이 지난 달 24일부터 일반형강 및 H형강 판매가격을 톤당 5만원 인상한데 이어 동국제강이 형강류 제품가격 인상을 실시했다. 동국제강은 이달 1일자로 형강류 제품의 가격 인상을 유통업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인상폭은 톤당 5만원 수준이다.

동국제강의 형강류 제품가격 인상으로 국내 주요 형강 생산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완료됐다.

형강류 제품의 가격 인상이 전격적으로 실행됨에 따라 철근 가격도 빠른 시일 내에 가격 인상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TS] STS유통시장, 실 거래 가격은 일단 올라갈 것

- 포스코 2월 가격은 동결됐지만, 구정 이후 유통 실 거래 가격은 올라갈 것

- 대다수의 업체들 연휴 이후 할인을 축소 움직임 보일 것

스틸데일리 기사요약 2011-02-01

1월 말 스테인리스 유통 거래가격은 전주대비 소폭 상승되어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포스코가 2월 출하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업계 일부에서는 당황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구정 연휴 이후 유통 실 거래 가격이 현재 수준보다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2월이 영업일수가 짧은 점과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량에 대한 압박감이 생길 가능성도 크지만, 니켈가격의 강세장 혹은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경우 3월 출하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2월 시장이 지난달보다 상대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코일센터들의 재고상황이 넉넉치 못한 데다가, 수입재 역시 가격경쟁력에 대한 일부 부담으로 2월 시장이 저가 판매경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다수의 업체들이 구정연휴 이후 할인폭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월 유통시장의 거래가격은 1월 말보다 kg당 50~100원 정도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사내 동호회 소개 편 ① KC코트렐 "KC Futsal"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1



KC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KC코트렐 사내동호회 "KC Futsal" 회장을 맡고 있는 제철사업부 박성용이라고 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2006년 독일 월드컵,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그리고 얼마 전 일본이 우승을 거머쥔 2011년 아시안컵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세계의 환경과 축구를 사랑하는 39명의 KC가족과 함께 2년째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어 저희의 자그마한 애기를 KC가족 여러분께 소개 드리고자 수줍게 펜을 들어봅니다.

풋살(Futsal)은 일반 경기장에서 하는 축구 경기 대신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미니 축구를 뜻합니다. 에스파냐어로 '축구'를 뜻하는 'futbol'과 프랑스어로 '실내'를 뜻하는 'salon'을 합성한 용어로 미니 축구이지만 운동량에 있어서는 일반 축구 못지 않습니다.

이런 풋살을 즐기는 우리 'KC Futsal' 동호회는 2007년 5월에 개설되어 올해로 만 4년정도 되었으며, 초대 회장인 해외사업부 이광무 대리를 거쳐 현재는 저와 총무인 발전민수사업부 박영준씨, 그리고 38명의 '운동 매니아'들이 모인 KC코트렐 대표 사내동호회입니다.

동호회 모임은 한 달에 2번(1,3주 수요일 저녁) 진행되며, 서울 상암월드컵 경기장 내 풋살 경기장에서 5:5 내지는 6:6으로 나누어 2시간여 동안 뜨거운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그렇게 서로 한바탕 몸을 부딪히면서, 하나가 된 뜨거운 심장을 나누며 동료애를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KC 삼양정수' 가족 분들과 친선모임을 가짐으로써, 본사 뿐만 아니라 KC Family와도 하나된 심장을 만들기 위한 작은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풋살회원들 ▶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1



▲ 풋살경기 중

또한 1년 중 휴한기(12월~2월)에는 풋살 모임을 대신해 매년 스키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스키 모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동호회 여러분의 가족 분들까지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회사 동료뿐 아니라 동료 가족 분들과도 건강과 웃음으로써 서로 새해 인사를 전할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 풋살 휴한기 모임



월드컵은 4년마다 한번씩 인종과 국가를 뛰어넘어 지구촌 전체가 '축구'라는 하나의 운동으로 축제를 벌이지만, 저희 'KC Futsal'은 모든 KC Family와 함께 진정한 Global Leading Company가 되어 모두의 축제를 벌일 그날을 꿈꾸며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사내동호회를 통해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임직원 및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KC코트렐 제철사업부 "풋살" 회장 박성용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2



여러분~저희는 사내커플로 결혼한 김성래/윤성원 부부입니다~

1. 우리의 만남 그리고 연애

본사에서 근무하는 저와 공장에서 근무하는 신랑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하였으나 서로 얼굴조차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신랑은 3년 전 회사 단합대회로 갔었던 안면도에서 날 처음 봤다고 합니다. 전 그때도 신랑을 보지 못했고 인연은 이어지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다음해에 전 노조 여성부장이 되어 대의원회의에 가서 공장 분들과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창호 부의원장님께서 저의 알가닥인 성격을 예쁘게 봐주셨고, 신랑의 부드러운 성격과 어울린다며 소개팅을 주선해주셨습니다. 소개팅을 한날은 2009년 7월 11일이었고, 우린 8월1일부터 연애하기 시작했습니다. ^^ 처음 소개팅을 한 날 신랑의 인상은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우람한 람보 같았지만 목소리는 굉장히 나긋나긋했습니다. 반면 신랑은 내가 자신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처음 만났는데 내가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이었답니다... --;; 그런 나의 알가닥 성격을 신랑은 온순한 성격이라 그런지 예쁘게 받아주었고 우린 초고속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사내에서 어떻게 연애를 성공할 수 있었는지 무척이나 궁금해 하지만 신랑은 공장에서 근무하여 집이 안성이었고 전 집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주로 주말에 신랑이 서울에 올라와서 데이트를 해서 회사에는 다행히 소문날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몇 번 위험한 일이 있긴 했다. 노조 대의원회의를 마치고 이보람씨와 이정미씨와 같이 문상을 위해 단국대 병원에 같은 차를 타고 왔다가 신랑이 날 데리러 와 이보람양과 인사를 했지만 신입사원이라 그랬는지 신랑의 얼굴을 몰라서 눈치를 채지 못했었다. 그 외에 위험했던 순간이 몇 번 있었지만 입 무거운 이정미씨와 이원희씨를 제외하고는 결혼 약속을 하기 전까지 비밀스러운 연애를 지속하였고 우리는 처음 만난 지 딱 1년 되는 해에 결혼하게 되었다. ^^)

2. 연애 끝에 결실, 결혼을 마음먹다

결혼할 사람은 느낌이 온다고 한데 그 말이 정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날 평생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월쯤 신촌에 궁합을 보기 위해 역술인을 찾아가 2010년 중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7월 25일을 받아 3월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유명한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를 하였는데 그때 양가 모두 너무나 편하게 대하시고 잘 드시기도 하셔서 한정식 집에서도 상견례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식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처음이라면서 놀래라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사랑이 깊어지면서 한달 뒤인 4월 5일에 아기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고 신랑과 난 결혼을 앞당겨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예정대로 7월 25일에 결혼하였습니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행

경제 통행

기획특집-2



3. 프로포즈는 꼭 받으리라

신랑이 항상 버릇처럼 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3번 프로포즈 해 줄게 기다려!!”

그래서 기다렸는데 상견례 후에도 프로포즈 소식은 없어 서운해서 신랑에게 언제 프로포즈 해 줄 꺼냐고 물었더니 벌써 두 번을 했다고 우겼습니다. 언제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조용히 결혼하자고 두 번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마지막 남은 프로포즈는 기대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결혼하기 한달 전쯤 드디어 신혼집이 완성 되었고 퇴근 후 신혼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집에 거의 도착할 때쯤 신랑한테 전화가 와 회사일로 늦게 온다며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신랑의 마지막 3번째 프로포즈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귀걸이와 곰인형, 케익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받았었던 것은 손수 만든 장식들이었습니다. 신랑이 준비한 현수막에

“오빠와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성원이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게요”

라고 적혀있었다.

신랑님 아직까지는 100점이에요. 신랑~앞으로도 부탁해요!!!

4. 리틀 김성래/윤성원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지만 결혼 전 생긴 아기라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해 태교에 소홀했었습니다. 임신 초기에 임신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었고 평소대로 현장으로 출장 다니고 신랑도 없이 혼자 지내니 더 우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병원에서 유산의 위험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제철사업부 상무님 및 팀장님들께 의논을 드렸고 모든 분의 배려로 뱃속에서 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제철사업부 모든 분께 감사 드려요^^)

그러다 10개월이 되었고 우리아가는 엄마아빠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지 예정일 10일정도 빨리 세상에 나왔습니다.

누굴 닮아서 그런 지 모유가 맛없다고 거부하고 분유도 맛보고 먹는 까다로운 아기지만 지금 너무나 사랑스럽게 잘 크고 있습니다. 예쁜 우리아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



아가^^

5. 아직도 몰래 연애하고 있는 사내커플들이 있다면~)

사내 결혼은 기쁨이 두 배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예쁘게 스틸 넘치는 연애하시다가 결혼이 결정되면 공개 연애하고 맘껏 축하 받으세요^^
그렇지만 사내결혼을 결심하셨다면 비자금 만드는 건 포기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ㅎㅎㅎ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행

경제 통행

기획특집-3

칭찬합니다! (안성유리공업 게시판 글입니다.)

제목 : 칭찬합니다

작성자 : 김순오

안성유리공업 홍세라(srhong@asglass.co.kr)



△안성유리 주차장

얼마전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내린 눈이 주춍하다가 오후 들어 다시 내리기 시작할때쯤 주차장에 주차된 차의 윈도우 브러쉬나 올려 놓으려고 주차장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안성유리 주차장에 주차된 모든 차량의 윈도우 브러쉬가 다 올라가 있는 겁니다.

순간, 나는 내 차만 생각하고 주차장에 갔는데, 그 누군가는 벌써 다른 동료의 차까지 윈도우 브러쉬가 얼까봐 그 많은 차를 다 일일이 올려 놓은 겁니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료들이 옆에 있는 한 안성유리는 발전할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따뜻한 마음 정말 감사합니다.

김정완 2011-01-09

역시 한가족으로서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있는 안성유리의 문화를 대변하는 훈훈한 미담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함께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소통의 의지가 있으면 성공할 수 밖에 없지요~ 감사합니다.

이선영 2011-01-10

웬지 흐뭇함에 미소 짓게 합니다. 안성인 모든 이들의 마음씀이 아닌가 합니다.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안성유리의 경쟁력 입니다.

행복한 일주일 되세요. 감사 합니다.

이봉형 2011-01-10

아~~!! 이런 좋은 일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다음부터는 공장 구석구석 다니면서 누가 이런 좋은 일을 했는지 꼭 살펴서 칭찬해주겠습니다. ㅎㅎ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계속 영하권인데 이런 따뜻한 애기 들으니 좋네요.

임재무 2011-01-10

저도 고마움을 표할라구 누가 그랬는지 물어 물어 찾아서 고맙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조그만 일이지만 사우애가 묻어나는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찬용 2011-01-10

감동적이군요. 추운 날씨에 본인것도 하기 귀찮는데, 남의것 까지 신경을 써준 사우는 머랄까. 오른손이 하는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군요.....본 받을만한 사우네요.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4

2011년 KC코트렐 발전민수 사업부 워크샵

지난 1월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KC코트렐 발전민수 사업부는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한 펜션으로 워크샵을 떠났습니다. 2011년 발전민수사업부 사업목표 달성에 즈음하여 사업부 임직원의 의사소통 및 업무능률 향상과 2011년 사업부 목표 수립을 위하여 1년여 만에 사업부 직원들 45명이 대이동을 감행하였습니다.

모처럼 눈이 내린 청평의 겨울 산과 얼음으로 가득 찬 강변은 風光明媚 를 자랑하고 있었고 우리 사업부 직원들은 사무실의 딱딱함에서 벗어나 모처럼 마시는 서늘한 공기를 그저 즐기는 느낌과 달리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田園의 신선함을 느꼈습니다.



매년 일상처럼 시행하는 워크샵이었지만 아침부터 시작하여 저녁 7시가 넘어서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기존의 사업부 목표를 위주로 시행했던 Top-down방식이 아닌 열린 커뮤니케이션과 KC문화의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김재수 선임의 미국 소재의 네트워크사 NOL-TEC Systems 소개, 오강환 상무의 카자흐스탄 GRES 1PJT PT로 사업부 직원 모두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이번 워크샵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KC문화와 의사소통에 대한 테마를 토대로 진행한 시간에는 선배 직원으로 하여금 후배 직원들이 생각하는 바를 알 수 있었으며 서로가 좀 더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편 2010년 시행한 발전민수사업부 자체 기술 교육에 대한 의견도 다양 했으며, 올해는 기술교육을 통해 진정한 엔지니어로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배정된 자유토론에서는 사업부 개선사항,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개선책, 의사소통에 대한 진지한 토론, 여가시간 활용 등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짧지만 알차게 보낸 1박2일의 워크샵은 향후 회사의 구성원 하나하나가 다방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워크샵은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깊었습니다.

포항에서의 다른 일정을 마치고 멀리까지 오신 사장님께서도 발전민수사업부와 신묘년의 희망찬 새해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KC네트워크 가족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워크샵 및 저녁 식사